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며 존경받는 의료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발행인: 박혜영 편집인: 이화영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 양천구 목5동 911-1 전화 02-2650-5703~4 팩스 02-2653-8891

제 29 호 < 2011. 9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

◎ 2012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9월 30일(금) 2012학년도 수시모집 M.D.과정(임무석사과정) 최종합격자 46명(일반전형 42명, 특별전형 4명)을 발표하였다. 일반전형 합격자의 출신대학 분포는 이화여대를 비롯하여 국내외 최상위권 대학이 골고루 분포하였고 출신 계열별 분포 조사에서는 생물학, 화학계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전형에서는 외국대학출신 성적우수자 전형으로 4명이 선발되었다.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우수한 지원자가 너무 많아 모집 인원만 선발하기가 아쉬울 정도였다”며 “아쉽게 탈락한 지원자들은 올 해 정시모집에 도전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10월 11(화) 부터 13일(목) 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www.ewhamed.ac.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화사랑 하영식 장학금 수여식



‘2011학년도 2학기 이화사랑 하영식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9월 21일 12시에 의학과 A동 학장실에서 열렸다.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과 서석호 교무부원장, 임원정 학생부원장, 우소연

학생처장이 참석해 이번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M1 정새임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하영식 선생님은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이진화 교수를 만나 폐질환을 치료 받은 후 병원과 학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화의전원에 매년 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합창단 나눔예술회 공연

이화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9월 6일 오후 3시 김옥길홀에서 ‘서울시합창단의 생생콘서트’를 개최해 학생 및 직원 그리고 목동병원 환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문화회관의 ‘함께해요! 나눔예술회’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열리게 된 이번 음악회는 오세종 단장의 지휘로 지친 환우들과 이화 학생 및 직원들에게 가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하였고, 앵콜로 가수 “노라조”의 카레를 열창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세종문화회관의 ‘함께해요! 나눔예술회’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세종문화회관 산하 9개 예술단을 주축으로 병원, 학교, 각종 복지시설 등을 찾아 평소 공연 관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 2011년 M4학년 OSCE-II/CPX-III,IV 시행

2011년 M4 OSCE-II/CPX-III가 8월 23일(화)~25일(목) 3일간, CPX-IV가 8월 29일(월)~8월 30일(화) 2일간 의학과 B동 8층(EMSC, PBL-Room)에서 시행되었다. OSCE는 임상 실행능력 평가의 한 방법으로써 학생들이 일련의 station을 돌며 문항을 수행하는 시험이다. 이번 OSCE에는 전체 83명의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한 문항 당 5분씩 총 12개의 문항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CPX는 환자 진료를 모의적으로 수행하여 학생들의 임상 술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본교는 서울-경기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있다. 컨소시엄 산하의 훈련받은 표준화 환자(SP)들이 실제 시험에 투입되었으며, 무작위로 배정된 학생 12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한 사례 당 16분씩 총 6개의 사례를 가지고 시험을 치렀다. 한편 8월 31일(수), 9월 1일(목) 이틀에 걸쳐 M4 23명의 학생들의 OSCE-II 재시험이 시행되었으며, 9월 7일(수)에는 학생 10명의 OSCE/CPX 재시험이 가천의학전문대학원 6층 시뮬레이션 센터(ASK Center)에서 시행되었다.

◎ 4학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대비 Self study room 개설

이화의학시뮬레이션센터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을 대상으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대비를 위한 Self study room을 개설하였다. Self study room은 OSCE 항목과 관련된 실습을 스스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각 시험일 별로 실습조를 구성하여 시험 전 충분한 실습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 등은 각 국가고시 시험일 별로 의학교육실 어른경교수님의 tutoring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의료인을 위한 BLS(Basic Life Support) 과정 개최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와 미국심장협회(AHA)가 승인한 BLS Training Site인 의학전문대학원 시뮬레이션센터(EMSC)에서는 9월 30일(금), 10월 1일(토), 10월 3일(월)에 의료인을 위한 BLS(Basic Life Support) 과정을 개최하였다. 35명의 BLS-HCP(Health Care Provider)

를 배출한 이번 과정은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10월 7일(금) 및 8일(토)에는 의전원 4학년 및 이대목동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EMSC에서는 금번 과정부터 더욱 개선된 환경에서 BLS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의학관 B동 901, 902, 903호를 BLS 전문 교육장으로 새 단장하여 이곳에서 BLS를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인 교육과정은 개정된 2010 AHA Guideline에 따라 강사 대 학생 비율 1:3으로 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AHA에서 제작한 교육 동영상을 이용한 실습 및 test로 구성되며, Provider 과정 교육 참여 후 당일 시행되는 2회의 Skill test와 1회의 Written test에 합격한 교육생에 한해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미국심장협회)에서 인증하는 영문 자격증이 발급된다.

◎ 2011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 심포지엄 개최

지난 6월 24일 (금) 의학관 A동 212호에서 MRC센터 (센터장: 이지희 교수) 주최로 (2011 조직손상방어연구



센터 심포지엄-Tissue Injury and Regeneration)이 진행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조직손상과 재생' 그리고 '스핑고리피드와 조직손상' 연구 분야의 저명한 학자 7명이 강연자로 초청되었으며 총 50명의 교수 및 대학원생이 참가하여 최신지견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학생 및 교수 소식

[학/생/소/식]

* 의학전문대학원 축제 '행림제' 개최



지난 9월 23일 금요일 김옥길홀에서 43대 학생회 주최로 이화 의전원만의 축제인 '행림제'가 열렸다. 약 160명 학생들의 참가로 뜨거운 열

기 속에서 시작한 행림제는 이화여대 응원동아리 'PYRUS'의 무대를 시작으로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 1부에는 동아리 공연 (화검랑, 에뛰드, 8 seconds, infrared), 2부에는 '너는 가수다'가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젊음이 발산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로비에서는 암환자를 돕기 위한 수익 행사의 일환으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낸 물품 경매, 폴라로이드 사진찍기 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수익금 '1,840,000원'이 적립되었으며 지난 1학기 학생회 수익 행사들을 통해 모금된 금액에 더해 연말에 이대목동병원 내 암환자에게 기부할 계획이다. 행림제는 학생들의 젊음과 끼를 발산하는 동시에 다양한 의미 있는 행사가 더해져 이화의전원만의 전통있는 축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수/소/식]

* 신입 교수 (2011년 9월 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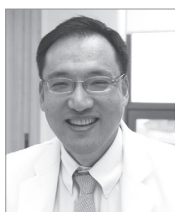


- 치과학교실 안병덕교수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석사

* 퇴임 교수 (2011년 8월 31일자)

소 속	이 름	비 고
미생물학	박혜경	정년퇴직
병리학	한운섭	정년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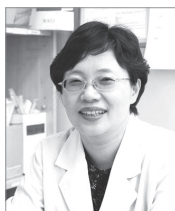
* 신상진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정형외과학교실 신상진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의 하나인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의 2011~2012년 의학·보건부문(Medicine and Healthcare)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국내 스포츠의학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신상진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어바인(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견 주관절 및 스포츠의학에 대한 생역학적 연구'에 대한 연수를 마쳤다.

* 김영주 교수 - 간단한 유전자 검사로 조산 위험 예측 가능 -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서 최우수 논문상 수상



조산의 위험성을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미리 알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화여대 산부인과학교실 김영주 교수팀(예방의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은 임신부들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비만인 여성이 특정 유전자 형태를 가지면 조산 위험도가 최대 6.1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조산아의 경우 폐의 성숙이 덜 되는 등 여러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미리 조산의 위험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대비할 수 있는데 이번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문은 9월 30일 개최된 제 97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의료원 동정

◆ 서현숙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3연임 이대목동병원장에 김광호 교수 신규 임명

이화여자대학교는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서현숙 의료원장(1949년생, 여, 방사선종양학과)을 8월 1일 부로 유임발령하고 이대목동병원장에는 김광호 교수(1960년생, 남, 외과)를 임명했다.



서현숙 /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번 연임으로 3번째 의료원장 임기를 시작하는 서현숙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지난 4년의 의료원장 재임 기간에 △이대동대문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의 성공적 통합 △이대여성암전문병원과

여성건강센터, 여성암연구소 설립으로 국내 여성암 대표 병원 위상 확보 △서울특별시 서남병원과 양천구 치매지원센터, 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등의 수탁 운영 △JC(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 획득으로 진료·연구·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의료원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끄는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해 이화의료원의 안정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광호 / 목동병원장

대장암과 대장 질환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의로 정평이 나 있는 신임 김광호 이대목동병원장은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 세인트 마크 병원에서 연수, 미국 NYPH 병원에서 임상 전임의를 지냈으며, 이대목동병원에서 위암·대장암협진센터장, 진료협력센터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임상 및수술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새로 임명된 이대목동병원장 김광호 교수는 지난해 6월 개소한 위암·대장암협진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위암·대장암협진센터를 성공적으로 조기 안착시켰으며, 진료협력센터장으로서 양천구, 강서구뿐만 아니라 구로구, 영등포구, 광명시 등 인근 지역 의사사회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며 이대목동병원 중장기 발전의 기틀을 다진 것이 이번 인사의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해외의료봉사

[Everlasting EMC]

〈의학전문대학원생 M2 심선아〉



지난 방학 동안 캄보디아, 베트남 봉사활동을 다녀온 친구들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한 번 꼭 봉사활동에 참가해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 과연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섰다. 이리저리 생각만 하며 시간을 보내다 뒤늦게 EMC에 지원하였는데 결국에는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과 꼭 가고 싶다는 미련에 교수님께 혹시 자리가 하나 더 남지는 않는지 여쭙어 보았다. 간절함이 통했을까, 결국에는 참가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뒤늦게 결정이 된 만큼 미리 준비한 친구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게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준비하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캄보디아에 가기 일주일 전 시험이 시작되었고, 시험을 마치자마자 밀린 과제를 해야 했다. 결국 과제 제출과 동시에 캄보디아로 떠나게 되었고, 프놈펜에 도착하고서도 내가 목동에 있는 것인지 캄보디아에 있는 것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다.

둘째 날, 밝은 아침이 되니 이제야 캄보디아에 있음을 피부로 느껴졌다. 진료할 곳에 가기 전 우선 캄보디아의 암환자 내전의 흔적이 남겨진 한 학교(투슬랭, toul sleng)에 방문하였다. 학교라는 공간이 내전을 겪으면서 정치범들을 잔혹하게 고문을 하는 곳으로 사용되어 현재는 슬픈 과거를 대변해주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운동장의 철봉은 사람들을 매달고 죽이는 고문 도구로 이용되고 각 교실들은 고문실, 감

옥소로 바뀌어 있었다. 끔찍한 캄보디아의 내전의 흔적을 보니 웬지 모르게 우리의 역사와 많이 닮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에는 봉사활동을 펼칠 주 무대가 있는 캄땡 스쁘의 이화-스랑 초등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넓은 토지 위에 자리 잡은 이화-스랑 초등학교 뒤 쪽으로는 산이 울퉁 솟아있었고 앞으로는 야구장, 마을이 있었다. 아름다운 곳이었다. 답답한 목동과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떠나, 자연과 어우러진 그 곳을 보니 마치 힐링 캠프에라도 온 느낌이었다. 숙소 또한 생각보다 편하고 좋았다. 3일의 진료활동이 모두 이화-스랑 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셋째 날, 드디어 진료가 시작되었다. 많지 않은 인원으로 모든 일을 이뤄내야 했기 때문에 한 사람당 두 가지 일을 맡는 것은 기본이었다. 그러다보니 신경이 곤두서기도 하고 실수도 하였다. 한 할머니가 손녀를 소아과에 잠시 두고 다른 곳에 다녀오시다가 다시 소아과로 돌아가는 길이었었는데 그 할머니를 약국으로 가시라며 엉뚱한 안내를 하기도 하였다. 그 때는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뒤돌아 와서 생각해 보니 웃음이 난다.

3일간의 진료 동안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다른 동네 캄보디아 주민들도 이화-스랑 학교를 찾아와 주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었다. 하지만 진료 마지막 날 까지 어느 누구도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며 불평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그들의 모습에 참으로 감사하기도 하며 그들의 여유, 그리고 인내에 감동했다. 또 하루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서도 한결같이 환자들을 대하는 교수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사진을 찍다가 아이들과 놀아줬다가 진료소 안내도 보는 등 자재다능하게 열심히 일했던 의전원 학생들과, 학부생들까지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첫 진료부터 마지막 날 진료까지 캄보디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환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인지 의사를 만나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건지 어느 하나를 꼭 집어 그렇다(아마 둘 다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캄보디아에 이렇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쉽사리 알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잘 왔다고 느꼈다.

발에 난 작은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악화된 아이도 있었고 scapular 부근에 mass가 있어서 제거 수술을 받은 할머니, 턱 부근에 pus가 있던 아저씨 등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다. 그 중에서 배에 커다란 mass가 있던 어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피명희 선생님께서 진료한 환자였는데 과거에 신장을 떼 경력이 있었고 다른 쪽 신장도 좋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후에 진료를 제 때 받지 못 했고, 밖으로 도출 될 정도로 악화 되셔야 비로소 우리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다. 진료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는데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 왔다. 선생님께서는 그 분 외에 brain tumor가 의심이 되던 동자승 등 치료가 시급하게 필요한 총 3분께 검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해 주고, 또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모셔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하셨다. 그저 걱정이 되어서 선생님께 물어본 것이었는데, 이런 대답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일회성 활동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회의가 들 때도 많았다. 봉사활동을 하면 나에겐 평생의 추억이자 보람이 될 수 있지만 정작에 받는 입장에서 그 순간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EMC가 단순히 일회적 봉사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다.

처음 진료를 할 때 놀랐던 것은 현지 주민들의 진료 차트가 남아있다

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가는 것을 보니 EMC가 지속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MC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차트가 쌓이게 되고 주민들의 건강 상태나 질병이 정기적으로 Follow up이 가능해 질 것이다. EMC가 단편적인 의료봉사 '활동'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비록 이번 활동이 나에게 있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몰라도 주민들은 매년 EMC를 만나 진료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번 캄보디아에서의 활동은 내 개인적인 발걸음만 되돌아보면 내가 한 일은 미비할 뿐더러 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이 내가 준 것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화 의료봉사단"으로서 우리는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였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고 싶다.

앞으로 이화-스랑 초등학교에 현지 주민들의 차트가 차곡차곡 쌓일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나에게도 비록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캄보디아 EMC이었지만 지속적인 EMC를 통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삶의 위로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으면 한다. 매년 EMC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응원의 메시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도 EMC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라고 권하고 싶다. 매년 3일 동안 열리는 캄보디아-이화 병원을 떠올려 본다.

해외교류보고



2010년 국제 교류 협정을 맺은 오스트리아 Graz 의과대학과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

램의 일환으로 2명의 교환학생이 이화의전원 순환기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서 총 4주간의 임상실습에 참여하였다. Michael Steinbacher, Gal Ivancic 2명의 남학생을 만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된 계기와 기대.

특히 이화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화를 알고 있었나?

A. Gal Ivancic(이하 G) : 국제교류담당교수가 적극 추천하였다. 미래에 성형외과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큰 이유이다. 이전에 중국, 일본으로 실습을 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으로 왔다.

Michael Steinbacher(이하 M) : 다른 나라 임상의학 경험을 원했고, 함께 온 Gal Ivancic가 아시아인들이 아름답고, 친절하며, 예의가 바르다고 해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다.

Q. 이화의 프로그램은 어떠했는가? 당신들의 학교 시스템과는 어떻게 다른가?

A. 전반적인 실습과정은 비슷했고, 1:1로 지도하는 방식이 좋았다.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참관을 많이 하였고, 성형외과에서도 친밀하게 지도해주었다. 외부병원도 참관한 것이 특히 인상 깊었다.

M : 한국어 보다 영어 의학용어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좋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교과서도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 논문을 읽기가 힘든데, 한국의 전공의들은 영어를 잘했다. 또한, 외래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인턴이 3년인데 한국은 1년이고 간호사가 채혈을 하는 것이 새로웠다.

2주 동안의 인턴업무를 실습하는 학생이 도와주는 구조인데, 한국의 학생들은 일보다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부러웠다. 오스트리아는 실습학

생이 야간당직도 한다. 전공의 과정은 내과가 6년 즉, 학교 6년, 인턴 3년, 전공의 6년 뒤에 전문의가 된다.

Q. 한국에서 지내는 것은 어떠하였는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A. G : 기숙사가 10점 만점에 10점이다. 다른 나라 기숙사보다 시설도 좋고, 가격이 저렴했으며, 교통 또한 편리하였다. 지하철역에서 병원 서들을 타고 다녀서 문제가 전혀 없었다.

M : 국제기숙사가 좋았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지 않았다.

Q. Michael Steinbacher학생은 심장내과, 소아과를 선택했고 Gal Ivancic학생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를 선택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A. M : 병태생리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의대를 시작할 때부터 내과와 소아과를 좋아했다. 앞으로 큰 병원보다 작은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싶다. 큰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교수/전임의가 적어 인턴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턴으로서 실제적인 환자진료에 많이 참여하고 싶다.

G : 안전성형에 관심이 많아서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구강외과 실습을 했다.

Q. 장래에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

A. M : 소아과 또는 내과의사가 되고 싶다. 의대로 돌아가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싶다. 졸업논문을 소아호흡기에서 "cystic fibrosis: 환자의 골밀도 추적연구 VITD와의 연관성"을 준비하고 있다.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G : 시장이 큰 중국의 전망이 기대되기 때문에, 상해에 성형외과를 개업하는 것이 꿈이다.

Q. 곧 돌아간다.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A. M : 2주동안 2곳을 실습하라고 추천해줬다.

G : 돌아가서 해외 실습지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대외협력위원회 소식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외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국제교류장학기금, 글로벌인재육성기금, 각 교실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금명	후원자	약정액
병리학교실 발전기금	한운섭	3,000,000
선배라면장학금	조민선	960,000
의대연구기금	*북미주 의과대학동창회	21,381,577

*28호 소식지 중 "이화국제재단"을 "북미주 의과대학동창회"로 정정합니다.

알/립/니/다

+ 소식지 원고 모집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jkkim9999@ewha.ac.kr)
-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www.ewhamed.ac.kr>) 내 학교소개/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 주소 변경 문의 (이화의대 동창회 사무실 TEL. 02) 2650-5782)